

〈발 제〉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이해

이 재 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광주지부 사무국장)

1. 학교폭력의 이해 / 191
2. 학교폭력의 원인 / 192
 - 1) 개인적 원인 / 192
 - 2) 가정적 요인 / 192
 - 3) 학교 요인 / 193
 - 4) 사회적 요인 / 193
3. 학교폭력의 유형 / 193
4. 학교폭력의 실태 / 194
 - 1) 학교폭력실태의 통 / 194
 - 2) 다양한 변이별 학교폭력 실태 / 194
5. 결 론 / 196

1.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정의

언젠가부터 한국사회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 매우 만연된 현상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으나 한국의 경우 1990년도 초기, 학생들의 잇달은 자살과 폭력으로 인해 살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올베우스 교수는 학교폭력을 정의하기를 '힘의 불균형(강한친구 와 약한친구)상태에 서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희생자 한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부정적 행위(조롱, 괴롭힘, 별명부르기, 때리기, 밀기, 꼬집기 등)을 하는데 부정적 행위에 노출된 학생은 폭력학생(또는 그룹)에게서 자기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을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으로 분류하는데 직접적 폭력은 희생자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의미하며, 간접적인 폭력은 집단에서 고의로 왕따 시키는 식의 의미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올베우스는 학교폭력을 'bullying'으로 표현하는데 'bullying'이란 '괴롭힘'의 뜻이다. 즉 그가 violence를 선호하지 않고 'bullying'이란 단어를 선호한 것은 따돌림을 폭력 속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이훈구,1999)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은 폭력에 대한 대상이나 형태, 범위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1995)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이 의식하고 있는 폭력의 범위를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뿐 아니라 폭력이나 성희롱, 질서위반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수(1996)는 "학교폭력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 밖의 인사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폭력을 가르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Archer & Browne 는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히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1989) 여기에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물리적 힘이 폭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 정의에 대하여 한상철(2003)은"집단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행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해석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고의적인 집단괴롭힘,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과 협박과 욕설등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준호 등(1997)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규정과 폭력이 발생한 장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신분이며 폭력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이와 같이 좁은 의미로 학교폭력을 규정한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상당수의 폭력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정의할 때 학교라는 장소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구분역시 학교폭력의 실체를 왜곡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 안이건 학교 밖이건 학생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영향은 똑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장소적 특성보다는 신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였으며 특히 가해자 신분보다는 피해자의 신분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을 놀림 및 욕설, 위협이나 협박등과 같은 언어적, 심리적 폭력, 따귀 등을 맞는 가벼운 폭행에서 상해위험이 매우 큰 폭행까지를 포함하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 증오적 폭력의 대표적인 예로서 '괴롭힘' 도구적 폭력의 상징인 '금품갈취,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성적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 5개로 구분하였다.

2. 학교폭력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공격성성격장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며,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이 작동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한다.

정서불안정

정서불안정'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생활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거듭되어 가정,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정서불안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본다.

2) 가정적 요인

가정은 기초집단으로 인간의 지능, 성격, 신체, 정서 형성의 근간이 된다. 따라

서 가정이 본래의 참 기능을 잃게 될 때, 자녀들의 가치혼란과 주체성 상실은 크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의 우리 고유의 전통적 대가족제도의 '공동사회'가 핵가족제도의 '이익사회'로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주체성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부모의 나쁜 양육태도, 결손가정, 가정교육에 무관심한 가정, 대화 없이 명령, 경계, 금지위주의 가정, 방임, 과잉보호 또는 지나치는 기대를 하는 가정, 빈곤가정 등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3) 학교 요인

- 입시위주의 시험체제의 원인
- 교사중심교육의 원인
- 과대 학교, 과밀하급 원인
- 정의교육과 소홀
- 인간관계에서 오는 원인

4) 사회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
- 입시경쟁의 긴장과 좌절감에서 오는 공격성
-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에 의한 폭력의 모방과 학습
- 사회전반의 유해환경
-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환경

3. 학교폭력의 유형

- 1) 신체적, 물리적 폭력 : 밀쳐내기, 발로차기, 때리기 등
- 2) 언어적폭력 : 욕설, 비난 등
- 3) 심리적폭력 : 괴롭힘, 놀림, 따돌림 등

4.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은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결과 전체학생의 20%이상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다양한 연구기관에서의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상이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점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갈수록 그 대상 또한 낮은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가해행위또한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해행위가 과시욕이나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한 단순폭행에서 최근에는 집단구타, 흉기사용 구타 등 조직화, 흉포화 되어가는 경향이다.

1) 학교폭력실태의 통계

2003년 5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19.1%가 물리적인 학교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13.8%비해 5.3%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따돌림의 경우 지난해 5.5%에서 1.5%증가한 7.0%가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 다양한 변이별 학교폭력 실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하 청예단

2002)

◎ 유형별 학교폭력실태

(표 1 유형별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유형 초중고	신체 폭력	금품 갈취	위협 및 협박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폭력 및 휴대폰폭력
초	12%	11%	10.5%	8.1%	5.9%	10.4%
중	6.4%	12.1%	9%	6.2%	2.8%	9.8%
고	3%	3.3%	3.4%	3.3%	0.5%	6.7%

계	21.4%	26.4%	22.9%	17.6%	9.2%	26.9%
---	-------	-------	-------	-------	------	-------

학교폭력의 유형별로 그 실태를 보면 금품갈취와 위협 및 협박 그리고 신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금품갈취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경험율이 가장 높다.

◎ 가해자별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가 60%이상으로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거나 모르는 사람의 경우보다 많다. 같은 학교재학생 중에서도 같은 학년의 학생이 전체 46%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가해학생의 다수가 같은 반의 급우라는 사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 당한다'라는 경험으로 이어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큰 심리적 타격으로 드러날 수 있다.

◎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실태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2배 정도가 많은 수치이며, 가해자인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최근 들어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사태 증가치가 남학생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남학생은 3%~7%가량 증가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3%에서 많게는 11%이상 높아졌다. 학교폭력의 피해율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 피해 후유증은 여학생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피해율이 가장 낮은 집단인 여고생이 피해 후유증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예단, 2002)유형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많은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

학교폭력 피해 후 피해학생들의 30% 이상이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따돌림의 경우는 40%정도)그리고 친구와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가 25~30% 정도이며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가 4.6%이다.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 등이며 따돌림의 경우는 31.6%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학생 스스로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따돌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가해를 가한 학생이나 피해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결 론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일이 발생하고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청소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전화상담을 통해서 많이 느끼지만 학교폭력 발생 시 가정의 부모, 학교에서 교사가 취해야할 행동 및 방법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디에 가서 이 문제해결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어른들도 많은 대책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방법을 찾지만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혼자 해결보다는 주위의 친구나, 부모, 교사, 경찰,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믿고 신고를 할 것이다. 행복한 세상과 ,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 모아 노력해야 한다.

〈토론 1〉

학교폭력 해결 - 학교를 바꾸어야 한다

박 정 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정책실장)

1. 학교폭력과 그 대책들 / 200
2. 광주광역시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관련 현황 / 202
3. 학교 문화의 개선을 통한 학교 폭력 근절 / 207
 - 1) 인권 교육 체계화 / 207
 - 2) 학생 인권 보호와 권위적 학교 문화 개선 / 208
 - 3) 학교 교육 환경의 개선 / 209
 - 4) 교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210

※ 다음은 학교폭력현상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 | | |
|--------|---------------------------------------|
| 보
기 | Ⓐ 금품갈취 |
| | Ⓑ 특수절도(구속) |
| | Ⓒ 폭행 |
| |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 |
| | Ⓔ 집단폭행 |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 | Ⓖ 상해 |
| | Ⓗ 감금 |
| | Ⓚ 사기죄 |
| | Ⓛ 방조죄 |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
| | Ⓨ 협박죄 |

1.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물건 훔치는 데 교실 문 앞에서 있는 경우 ()
2. 고장이 나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기에 친구와 둘이 혹시 움직이나 해서 타보는 경우 ()
3. 얼마가 되었던 값을 확실한 약속 없이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하여 갚지 않는 것 ()
4. 몸이 좀 약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자주 잊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 가정일 등 으로 고민에 빠져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참 이상한 애라고 상대하지 않거나 협박 혹은 위협하거나 괴롭힘 혹은 놀리는 일 ()
5.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구경을 했을 때 ()
6. 술에 취해 내 자기 것으로 알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 했을 때 ()
7. 사이버 머니나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등을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은 경우 ()
8. 여자 친구가 버디에 들어왔을 때 장난으로 익명으로 자꾸 이상한 그림을 보내는 경우 ... ()
9. 점심시간 친구와 싸우다가, 입을 다쳤다. 그런데 그 일로, 입안에 음식을 먹을 수 없거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 ()
10. 떡살을 잡고 흔들어서 친구 목에 멍이 들었다. ()
11. 토요일 오후 동아리 선배가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다음 반성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동아리방에서 문을 잠그고 밤 10시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
12. 평소 품행이 좋지 못한 친구에게 겁만 줌 주려고 “죽을래?”라고 몽둥이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 ()

1. 학교폭력과 그 대책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제출한 대책들은 거의 완벽하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엔 학교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계획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기본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방 및 대책을 세운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 추진 배경	1
II. 추진 경과	2
III. 추진 성과와 반성	4
IV. 학교폭력 현황 및 발생원인	8
V. 추진 목표와 방향	15
VI. 주요 추진 과제	16
1.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17
2.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20
3.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31
4.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33
5.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35

기본 계획에는

- 1) 학교폭력의 현황과 조사
- 2) 부처별 학교폭력 업무 분담과 추진 경로
- 3) 신고시스템의 단일화
- 4) 상담시스템 확충
- 5) 학교폭력 예방 교육
- 6)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 7) 정부 - 지역 - 학교 차원의 단계별 대책 기구 활성화
- 8) 피해학생 치료, 재활 지원
- 9)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대중적 처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물론 이 처방들은 중요하며, 학교 폭력을 줄

여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처방의 실효성이 과연 얼마만큼 되며, 그것이 근본적 처방책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면 대단히 아쉬운 대목들이기도 하다.

위 처방들에는 각각의 문제점들도 내포되어 있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 1)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가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부 기관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임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조사 방법인가?
- 2)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신고 체계의 단일화를 위한 생산적 대안이 있는가?
- 3) 상담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방안 등 세부 내용이 집행되고 있는가?
- 4) 예방 교육 시간의 법적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교수방법 개발 등은 진전되고 있는가?
- 5)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및 민간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6) 피해학생 의료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가?
- 7)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의 질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적과 효율'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실태조사부터 엉망인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의 실태에 관해 전문가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이다.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지 못한 가운데 실시되는 대책들은 대체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 대처 실적 여부에 따라 학교와 교원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발상도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실적과 효율'이 갖는 '대증 처방'의 한계들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터져 나오는 School Police제도, 학교 내 CCTV 설치, 가해학생에 대한 '병영체험' 등 매우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제도들이 서슴없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우려할만한 일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 해결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광주광역시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관련 현황

(기간 : 2006. 1. 1 ~ 6. 30 광주광역시교육청)

1)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학생 현황

학교	유형	학교 폭력 발생 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1. 서면 사과	2. 접촉 금지	3. 학급 교체	4. 전학 조치	5. 교내 봉사	6. 사회 봉사	7. 특별 교육	8. 출석 정지	9. 퇴학 처분
초 등 학 교	신체폭행	6	5	1	6	6	5	1						
	협박	3	3		3	3	3							
	금품갈취	1	2		2	2	2							
	집단괴롭힘													
	기타													
	계	10	10	1	11	11	10	1						
중 학 교	신체폭행	91	153	69	222	46	3	1	23	87	22	31	9	
	협박	6	9	2	11		1			5		5		
	금품갈취	27	25	27	52	4	3		3	28	5	6	3	
	집단괴롭힘	12	19	30	49		17			22	10			
	기타	4	11		11	3			1	6	1			
	계	140	217	128	345	53	24	1	27	148	38	42	12	
고 등 학 교	신체폭행	70	91	48	139	31	21			77	24	29	3	
	협박													
	금품갈취	15	34		34					5	14	14	1	
	집단괴롭힘	3	17	7	24	4					15	5	4	
	기타	5	6		6						6			
	계	93	148	55	203	35	21			82	59	48	8	
합 계	신체폭행	167	249	118	367	83	29	2	23	164	46	60	12	
	협박	9	12	2	14	3	4			5		5		
	금품갈취	43	61	27	88	6	5		3	33	19	20	4	
	집단괴롭힘	15	36	37	73	4	17			22	25	5	4	
	기타	9	17		17	3			1	6	7			
	계	243	375	184	559	99	55	2	32	230	96	90	20	

구분	비행학생수			조치사항					
	남	여	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계	
중학교	성폭행	4	4	8	2	0	6	0	8
	절도	34	6	40	29	4	3	4	40
	가출	19	3	22	13	5	2	2	22
	약물오남용	0	0	0	0	0	0	0	0
	음주	7	24	31	31	0	0	0	31
	흡연	88	25	113	72	0	41	0	113
	유해업소 /매체물	0	0	0	0	0	0	0	0
	기타	41	24	65	44	15	5	1	65
	계	193	86	279	191	24	57	7	279
고등학교	성폭행	1	0	1	1	0	0	0	1
	절도	41	7	48	46	2	0	0	48
	가출	1	38	39	39	0	0	0	39
	약물오남용	0	0	0	0	0	0	0	0
	음주	2	0	2	2	0	0	0	2
	흡연	304	77	381	206	0	175	0	381
	유해업소 /매체물	0	0	0	0	0	0	0	0
	기타	104	21	125	57	42	16	10	125
	계	453	143	596	351	44	191	10	596
합계	성폭행	5	4	9	3	0	6	0	9
	절도	75	13	88	75	6	3	4	88
	가출	21	41	62	52	5	2	2	61
	약물오남용	0	0	0	0	0	0	0	0
	음주	9	24	33	33	0	0	0	33
	흡연	392	102	494	278	0	216	0	494
	유해업소 /매체물	0	0	0	0	0	0	0	0
	기타	145	45	190	101	57	21	11	190
	계	646	229	875	542	68	248	17	875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조치한 학생수

구분	피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학생수					
	남	여	계	1.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 보호	3.치료를 위한 요양	4.학급교 체	5.전학권 고	6.기타조 치
초	16	9	25	18	6				1
중	149	64	213	200	2	1	3	5	2
고(특수 포함)	86	11	97	59	11	14	1	1	45
계	251	84	335	277	19	15	4	6	48

3)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의해 가·피해자간의 분쟁을 조정 한 경우

구분	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건수	조정에 성공한 건수	조정에 실패한 건수
초	4	4	0
중	33	29	4
고(특수포함)	22	21	1
계	59	54	5

4) 폭력서클 지도 현황

구분	파악된 폭력서클 총수	가담학생수			학교 자체적으로 해체한 수	경찰 등과 협조하여 해체한 수	미해체 수
		남	여	계			
초	0						
중	0						
고(특수 포함)	0						
계	0						

5)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학생)

(단위 : 개교)

구분	총 학교수	실시 학교수	교육 시간					강사		방법		
			1	2	3	4	5이상	자체	외부	강의	시청각	혼용
초	134	131	6	11	20	25	69	188	33	57	46	141
중	80	80	5	4	11	14	46	75	41	32	18	60
고(특수 포함)	65	64	1	10	12	6	36	137	26	80	9	50
계	279	275	12	25	43	45	151	400	100	169	73	251

6) 학교폭력 예방 연수 실적(교사)

(단위 : 개교)

구분	총 학교수	실시 학교수	교사 연수 시간					강사		방법		
			1	2	3	4	5이상	자체	외부	강의	시청각	혼용
초	134	131	38	52	21	9	11	151	5	78	15	67
중	80	80	26	21	14	7	12	79	7	43	7	34
고(특수 포함)	65	64	13	25	8	5	13	61	7	37	7	29
계	279	275	77	98	43	21	36	291	19	158	29	130

7) 학교폭력 예방 연수 실적(학부모)

(단위: 개교)

구 분	총 학교수	실시 학교수	교사 연수 시간					강사		방법		
			1	2	3	4	5이상	자체	외부	강의	시청각	혼용
초	134	127	77	40	6	1	3	133	5	91	6	42
중	80	73	34	22	10	2	5	71	4	37	5	32
고(특수 포함)	65	60	25	19	8	2	5	58	4	38	5	23
계	279	260	136	81	24	5	13	262	13	166	16	97

8)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청소년상 담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상담지원 봉사센터	전문의료 기관	교육 정보원	운암 지구대	법무부범죄 예방위원	청소년정신 보건센터	무등지 구대
초	47	24	17	8	2	1			99
중	32	18	23	9			1	1	84
고(특수 포함)	27	33	15	10					85
계	106	75	55	27	2	1	1	1	268

9) 단위학교의 상담실시 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전체학교수	상담실 설치 학교수	상담 건수				비고
			학교폭력	성폭력	진로상담	기타	
초	134	67	181	56	666	776	
중	80	59	282	30	1073	1440	
고(특수 포함)	65	34	146	15	1539	355	
계	279	160	609	101	3,278	2,57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취합한 위 자료를 통해 우리는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식과 일의 양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위 데이터를 신뢰하는 편

이 아니지만, 숫자나 통계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지역 차원에서 교육청이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의 흐름은 충분히 진단 가능하다.

지역 교육기관은 정부의 방침에 비교적 충실하게 일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 모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학교 문화에 대한 획기적 변화.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원에서 차단하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학교 폭력이 학교를 근거지로 하여 일어나는 교육적 문제라면, 학교 폭력의 해결 역시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 학교 문화의 개선을 통한 학교 폭력 근절

우리는 학교폭력의 다양함과 그 폐해에 대해 수 없이 경악한다. 일진회라고 이름 붙여진 조직적 가해가 늘어나고, 피해 학생들이 죽음으로써 사태를 웅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모두 다 학교가 저지르고 있는, 학교를 둘러싼 우리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범 죄적 폭력이다. 학교는 더 이상 이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사를 비롯한 교육 관련 기관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 인권 교육 체계화

학생들에게 인권 의식이 공고하다면 수많은 학교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수많은 학교 폭력이 바로 그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임을 안다면 상황은 결코 극단을 달리지 않을 것이다.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환상은 최근 학생들 사이의 왕따 피해를 비롯한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심정적 일체감을 형성한 또래집단이 한 개인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학적 쾌감을 얻는 왕따와 뺨뺨기에서부터 협박, 집단구타 등에 이르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인공포증, 학교 거부증,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왕따 문제는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학

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많은 학생들이 자신도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문제는 아이들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실업, 해체 위기의 가정 문제, 가정폭력이나 교사체벌로부터 연유한 적대감과 공격성의 증가, 학교현장을 비롯한 사회구조가 제시하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모델,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문화 등이 함께 결합하여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폭력은 “눈에 안 보이는” 폭력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 「학교와 학생 인권, 그리고」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차원 높은 감수성을 길러줘야 한다.

교육의 부재에서 문제가 기인했다면 그 해결책 역시 교육의 제공으로 풀어가야 마땅하다. 체계적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가 시급하다.

2) 학생 인권 보호와 권위적 학교 문화 개선

인권은 교육으로만 풀 수 없다. 학교는 한편으로 인권에 대해 이율배반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인권이란 실제로 존중받고 보호될 때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자유를 지키기에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 자신이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장에서 봉쇄된 채 살고 있다.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그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어렵다. 바로 여기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학생생활국에서 2006년 4월 6일부터 5월 31일 까지 서울지역 20개 중,고등학교 학생 7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몇 가지 결과들을 우리는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 다섯 개를 고른다면.

순위	응답항목	응답자수(명)	응답율
1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	647	83.06%
2	체벌	397	50.96%
3	교문지도	301	38.64%
4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	295	37.87%
5	강제적인 0교시, 야간 자율학습	289	37.10%
기타	임원 자격 성적 제한 (229명-29.39%), 학생회.동아리 활동 지원 부재 또는 미비(227명-34.65%), 소지품검사(220명-28.24%), 복지시설 부족(177명-22.72%) 징계 내용과 절차(162명-20.79%) ,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157명-20.15%), 대의원회 결과 또는 건의사항 처리(139명-17.84%),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불참(120명-25.67%) , 일기검사(86명-11.03%), 특정종교 강요(82명-10.52%), 전교 회장·부회장 성별 구분(73명-92.40%), 장애 학생이 배제된 학교(67명-8.60%), 집회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52명-6.67%)		

○ '학생의 인권침해행위의 금지하는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응답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①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343(13.57%)	61(14.32%)	94(15.24%)
②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403(15.95%)	75(17.61%)	131(21.23%)
③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570(22.56%)	62(14.55%)	82(13.29%)
④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434(17.17%)	67(15.73%)	105(17.02%)
⑤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적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510(20.18%)	120(28.17%)	166(26.90%)
⑥ 학생에게 교실 외에 화장실, 교무실, 운동장 등을 청소하게 하는 행위	238(9.42%)	38(8.92%)	37(6.00%)
⑦ 기타	29(1.15%)	3(0.70%)	2(0.32%)

'교사 중심의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학생 생활'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체벌금지 법제화,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학생 인권을 최우선에 둔 학생회칙과 학생 생활 규정 제정, 학생 자치활동 보장과 학생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3) 학교 교육 환경의 개선

학교 폭력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와 권위 추락, 출세지상주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얼룩진 사회 환경, 핵가족화, 가정폭력과 과잉체벌의 반복과 답습, 사회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 증대와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 확대, 폭력적인 인터넷 문화 등 이루 표현하기도 힘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자칫 문제 해결의 추상화로 귀결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인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과밀학급 해소

소집단 사이에서는 폭력적 현상이 많이 줄어든다.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는 보다 조밀하게 학생들을 관찰, 지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된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한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단지 수업의 질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만이 아닌, 학교폭력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교육양극화가 심각하다. 저소득층은 해마다 늘어가고, 교육재정은 반복적으로 적자를 해매고 있다.

학교운영비와 수업료 지원, 급식비 지원, 학습준비물 등에 대한 지원, 장학금 지원 혜택 확대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빈곤과 박탈감으로 인한 학교 폭력이 학교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교육 복지 구현

교육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휴게실조차 변변치 않은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학생 쉼터, 자치 및 동아리 활동 공간 확충, 전문 상담교사제 정착을 위한 전격 지원 등은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교육 복지의 현실적 구현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학교 안에서 활동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 안과 밖에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생활 주변 문제까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4) 교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정부는 학교폭력 실적에 따라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감점을 주고 있다. 어리석은 일이다. 입신을 위해 제자들을 감시하고, 신고하여 처벌케 하는 일을 사명감으로 수행할 교사는 거의 없다.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에게는 겸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교사가 하는 것이다. 경찰이, 가정이, 법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에 대한 일차적 의무 역시 교사가 짊어져야 한다. 교사에게도 여러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져야 할 짐을 놓을 순 없는 것이다.

교사는 학교폭력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인권 교육에 앞장 서 나설 수 있어야 하며, 학생 인권 보호를 통한 학교문화 체질 개선에 헌신해야 한다.

장위초등학교 이기규 교사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서 서술한 다음과 같은 대목을 교사들은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회의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선생님 중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교육에 대한 반응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교육은 아이들에게 불순하고 급진적인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둘째, 인권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다.

셋째, 인권교육은 해야겠지만 인권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다.

저는 이러한 반응들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아이들, 자신만 아는 아이들에게 권리 의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은 인권 교육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치면 "떠드는 것도 내 권리에요." 혹은 "장난치는 것도 내 권리에요"라고 이야기하며 학교의 기본적인 규칙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교육은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사의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인권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학생 인권 보호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사고는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래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살펴보자.

○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가?

응답항목	교사
① 매우 그렇다	2(1.01%)
② 어느정도 그렇다	96(48.48%)
③ 아니다	65(32.83%)
④ 몹시 아니다	24(12.12%)
⑤ 잘 모르겠다.	11(5.56%)
소 계	198명

위에서 드러나듯이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시각은 아직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타율적인 학교 문화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 제고와 실천력이 요구된다. 체벌금지 법제화, 자율적인 학생 생활, 회칙과 규정의 개정, 학생 자치 확대와 자율 활동 보장 등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변화 모두는 교사의 선도적 행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학생 생활지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급우간 관계, 잠재적 피해학생에 대한 사전 파악, 직접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 조치,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모두 교사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할 과제이다.

교사는 학교 폭력 해결의 주요 당사자이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토 론 2〉

학교폭력 상담사례를 통해 본 유형별 대응방식

이 춘 희

(광주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팀장)

- I. 들어가는 말 / 215
- II. 학교폭력 유형별 상담사례 / 215
 - 1. 학교폭력 상담 및 사례관리 절차 / 215
 - 2.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유형별 대응방식 / 216
- III. 맺는말 / 219

I. 들어가는 말

학교폭력에 관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상담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례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피해학생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알리기를 꺼려하며,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의 접근은 용이하지 않다. 2005년 5월 26일 광주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개소 이후 2006년 4월 30일까지 본 센터에 학교폭력으로 156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상담이 진행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지역 내 학교폭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실무자들이 지역사회 연계망을 더욱 확고히 하여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향한 현실적인 학교폭력의 근절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II. 학교폭력 유형별 상담사례

1. 학교폭력 상담 및 사례관리 절차

- 1) **상담접수** - 서비스 대상자 여부파악, 인적사항 파악, 현재 상황 및 욕구파악, 접수경로 파악
- 2) **사례판정** - 문제 상황 검토, 개입 전략 수립
- 3) **구 조** - 기관연계 : 해당 지역 학교폭력 관련 단체 정보제공, 협조요청, 공문발송 (경찰청 112 범죄 신고센터, 경찰청117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 긴급구조 : 2인 이상 상담원 동행, 문제 상황 및 욕구파악, 현장상담
- 4) **상 담** - 라포 형성, 피해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지원, 심리검사실시 여부, 법적처리 절차 등 상담 목표설정, 내담자와 상담목표 공유
- 5) **의료지원** - 초기 상담시 내담자의 건강상태 파악, 내담자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의료비지원, 귀가지원
- 6) **법률지원** - 합의 중재 : 피해상담, 증거자료확보, 학교에 도움요청, 가해학생사과·각서, 피해학생 보호·치료, 피해학생 측·가해학생 측 합의 유도

- 법률지원 : 고소장 및 진술서 작성/제출, 조사동행, 증거 자료 제출

- 7) 사례종결 - 위기상황종결, 내담자와의 합의, 사례종결회의, 사례종결 보고서 작성, 사후관리계획 수립
- 8) 사후관리 - 전화 및 내방/현장상담, 위기발생 가능성 점검, 내담자 지지상담

2.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유형별 대응방식

1) 반복적인 집단폭행, 언어폭력

- 피해자 : 서○○, 14세(남)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 상담기간 : 2006. 5. 4.~ 현재 상담 진행 중
- 접수경로 : ○○경찰서 기관연계
- 가족유형 : 양친가정

□ 사건 개요

내담자는 ○○경찰서 기관연계로 부모와 함께 내방하여 상담. 내담자는 반 친구들의 폭력을 떠올리면, 불안해진다고 하여 주로 어머니와 초기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내담자는 아버지와 함께 상담실 밖에서 안정을 취함.

학교폭력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학생의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부적응으로 장기간 등교 거부.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위기개입

- ① 초기상담 -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내 지지체계 확립을 위한 가족상담을 병행.
- ② 심리검사 - 심리검사를 통한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
- ③ 의료지원 - 내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가 심각하여 신경정신과 병원에 의뢰하여, 입원 치료
- ④ 학교 측에 피해사실 및 피해자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 가해학생의 부모와 합의 조정.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재판 진행 중.
- ⑤ 지속적인 사례관리

2) 왕따와 지속적인 폭행(언어폭력)

- 피해자 : 박○○(가명), 17세(남)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 상담기간 : 2006. 7.7.~ 현재 상담 진행 중
- 접수경로 : 1388 청소년전화
- 가족유형 : 양친가정(부의 직장문제로 인하여 현재 모가 양육함)

□ 사건 개요

내담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교사의 수업 중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함. 친구 4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했으며, 내방 시에도 얼굴에 멍자국과 외상의 흔적이 보임. 중학교 때에도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두 차례 전학한 적이 있으며, 중학교 때의 사건이 아직 해결(소송 진행 중)되기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함. 현재 내담자는 심한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며, 학교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 위기개입

- ① 피해사실과악 - 상담을 통해 현재 내담자가 호소하는 욕구 및 피해사실 증거자료 확보(진술서, 진단서, 물증 - 사진촬영).
- ② 학교 측에 피해사실 및 피해자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
 - 첫째, 현재의 내담자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
 - 둘째,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로부터 사과 및 가해자를 처벌.
 - 셋째, 재발방지를 약속.
- ③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소집 후 가해학생들에게 4일 교내봉사 처벌을 내림, 오히려 내담자가 전학을 갈 것을 종용함 - 가해자, 가해자 부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함.
- ④ 소송진행 - 학교 측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 ⑤ 피해자 심리상담 -심리상담 및 검사 결과 대인기피(공포), 우울 및 강박 증상을 보여 신체적 고통치료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안정 조치를 취함(외과 치료, 정신과병원 의뢰, 부모상담 병행).

3) 금품갈취, 집단폭행

- 피해자 : 송○○, 15세(남)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 상담기간 : 2006. 6. 20.~ 현재 상담 진행 중
- 접수경로 : 내방상담
- 가족유형 : 재혼가정

□ 사건 개요

내담자는 인터넷 중독문제로 처음에 내방하여 상담하였으나, 상담 진행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 나와서 개입하게 됨. 내담자는 중학교 올라와서 5명의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 당함. 돈이 있을 때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구타를 당함. 집에서 돈을 훔쳐서 가져다준 적이 많다고 함.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였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았다고 함. 현재는 방학 중인데 개학하면 또다시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 함.

□ 위기개입

- ① 초기상담 -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과 재혼가정으로써의 갈등 해소 및 가족 내의 지지체계 확립을 위한 가족 상담을 병행. 내담자가 호소하는 욕구과약
- ② 심리검사 - 심리검사를 통한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
- ③ 부모상담 - 부모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고, 대처방법을 모색.
- ④ 학교 측에 피해사실 및 피해자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 현재 학교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임.
- ⑤ 지속적인 사례관리

4) 지속적인 언어폭력

- 피해자 : 이○○, 17세(남)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 상담기간 : 2006. 5. 24.~ 6. 2. 3회 상담 후 조기종결(내담자 요청)
- 접수경로 : 1388전화상담 / 상담예약 / 내방상담
- 가족유형 : 양친가정

□ 사건 개요

중학교 때까지는 부실장을 하는 등 비교적 성적도 우수하고 지도력도 인정받음. 고교 입학 후 학기 초부터 친구들이 '병신'하고 놀려댐.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으나 자꾸만 신경이 쓰여 불안하고 공부에도 집중이 되지 않음. 어머니가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했으나 그냥 재미 삼아 놀려대는 것이고 학교에서 혼한 일이니까 무시하라고 함.

내담자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자신이 정말 친구들의 놀림처럼 형편없는 학생이고 부모님께도 심려를 끼친다는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됨.

전화상담 후 어머니 내방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 상담과 심리검사 등으로 상담계획을 세웠으나 내담자의 유학결정으로 상담 조기종결. 유학 때까지 상담지속을 제안했으나, 부모가 아들의 일을 더 이상 알리기 꺼려하여 조기 종결됨.

□ 위기개입

- ① 초기상담 - 내담자의 가족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내방상담을 유도함. 가족 내의 지지체계 확립을 위한 가족 상담을 병행
- ② 심리검사 - 심리검사를 통한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치료계획 수립
- ③ 지지상담 - 주로 인지행동 기법으로 내담자의 자존감 회복과 심리적 안정 도모
- ④ 3차 상담 진행 중 부모의 내담자 뉴질랜드 유학결정으로 상담 조기 종결

III. 맺는말

요즘의 학교폭력은 일부 비행청소년이나 비행집단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화가 아닌 학교 내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이 잠재적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혹은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지속한다.

그 동안의 학교폭력 상담 경험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발생 시 부모나 교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부모나 교사의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나 교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피해학생의 피해사례를 이야기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며 심리적인 고통이 크다.

둘째,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에 사회단체 및 청소년관련기관(학교폭력예방재단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이나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책이 수립되고 피해학생이나 부모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면 한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도 깊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또한 한번 발생하면 그 심리적 외상이 매우 크며, 치료를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예후도 좋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반사회적 행위임을 인식시킨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피해학생의 학교복귀를 도와야 한다.

본 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대부분이 전학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은 또 다른 증폭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지지 및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폭력의 개입사례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해학생도 보호에 대상의 범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비신체적 학교폭력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교내봉사나 정학 등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또래집단에서 건전한 우정을 꽃피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